

페미니스트 번역가 유혜담의 아비투스¹와 번역 전략 연구: 『코르셋』의 파라텍스트와 번역 전략 분석

이화연(한국의외국어대학교)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다양한 언론과 대중 담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일상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특히 번역가의 경우는 더욱 드물다. 번역가는 사회적, 이념적 메시지를 반영할 수 있는 동시에, 원문을 충실히 목표 언어로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번역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번역가의 정체성과 번역 실천을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페미니즘 번역의 전략과 실천이 번역가의 사회적 배경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며 활동했던 번역가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유혜담 번역가이며,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그는 번역서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 번역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둘째, 그가 출판한 번역서는 모두 페미니즘 관련 서적이었다. 셋째, 그는 자신의 번역 경험과 정체성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를 출판했다. 이러한

점에서 유혜담 번역가는 연구 대상으로서 독창성을 갖는다. 또한 이 연구는 번역가의 성장 및 철학 그리고 번역가의 번역물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전 서구에서 나왔던 von Flotow(1991)의 번역 전략이 아닌 이상빈(2023)의 한국어 번역에 맞는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 7가지를 중심으로 번역가의 작품 『코르셋』에서 예시를 찾아 그가 노력했던 페미니스트 번역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 작품은 유혜담이 본격적으로 번역가로서 이름을 알린 초기 텍스트로, 그의 초기 번역 철학이 잘 드러난 사례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주의 번역가 유혜담의 번역 실천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번역가의 삶의 궤적과 아비투스(habitus)는 그의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유혜담의 번역에는 이상빈이 제안한 한국형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2. 번역가의 아비투스

2.1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

아비투스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주창한 개념으로 번역학에서도 번역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이 되어 왔다. 특히 부르디외의 아비투스에 대한 개념은 번역 및 통역 연구 내에서도 귀중한 기여를 해 왔다(Inghilleri, 2005, p. 126). 부르디외(Bourdieu, 1983, p. 341)는 작가 및 예술가의 습관과 기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환경 및 그들의 이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비투스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번역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왔는데 특히 번역가의 아비투스에 대한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번역 연구에서 부르디외의 이론은 장(field), 아비투스(habitus)와 자본(capital)의 주요 개념을 가지고 적용된다. 여기서 장은 특정한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경쟁하는 사회적 장(field)이다. 각 장은 고유의 규칙과 권력 관계를 지니며, 행위자들은

그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경쟁한다. 아비투스는 개인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체화하여 성향, 인지 방식, 행동 습관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 또한 자원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으로 나뉘지며, 각 장에서 행위자가 경쟁하는 데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궤도(trajectory)를 따라 움직이는 대리인(agent)과 이를 둘러싼 객관적 구조 간의 기본적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는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사회적 궤도가 장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이는 결국 아비투스 구조를 성립시켰다. 특히 번역 연구에서는 번역 대리인(출판사, 비평가, 번역가)의 아비투스와 번역물을 수용하는 곳인 타깃 장(target field) 간의 관련성 분석 및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Gouanvic, 2005, p. 148).

그러나 번역가의 아비투스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는 많지 않다. 국내 연구로는 임진(2020)이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와 명선혜(2020)의 아비투스 개념을 토대로 한 ‘전문 번역사의 MTPE 기피 원인’ 분석이 주목된다. 특히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임진의 비문학 출판 번역가의 아비투스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번역가의 에피텍스트와 번역작품 연구 및 번역가 에세이, 인터뷰, 뉴스 기사 및 그 밖의 자료들을 가지고 번역가의 아비투스가 번역의 실제 및 작업의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번역가는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전달을 최우선으로 삼고 번역가가 살았던 시대의 유행 및 열풍에 맞추어 번역서를 선보임으로써 중간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번역가의 노력은 출판사 대표가 된 이후, 장의 구성원으로서 강력한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임진은 아비투스 개념을 적용한 번역가 연구의 공통적 전제를 두 가지 제시해 주었는데 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임진(2020)의 아비투스 개념 적용의 번역가 연구의 공통적 전제와 본 연구의 적용

구분	임진(2020) 아비투스 적용 전제	본 연구의 적용방식
전제 1	아비투스는 사회구조(장)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그 구조를 재형성하는 순환적 성격을 지님	유혜담은 가부장적 사회, 남아선호 등의 구조적 영향 아래에서 페미니스트 아비투스를 형성, 이를 통해 번역의 장에서 새로운 윤리와 실천을 제안함.
전제 2	번역가의 삶의 궤적이 아비투스 형성에 결정적이며, 이는 직업적 실천행위로 구체화 됨	유혜담의 유학 경험, 언어적 재능, 성차별 인식 등은 번역 실천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고, 그 실천은 번역 전략 및 파라텍스트 분석에서 드러남

이러한 임진의 공통적 전제는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연구에도 투영되는 부분이 있으며 본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행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의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 대상인 번역가의 번역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 연구에 주요하게 사용했던 번역가의 에세이 또한 그 배경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임진의 연구 대상 번역가는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개인적 문화적 경험을 드러내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 번역가는 사회적 의미, 여성 주체성, 그리고 번역 철학을 강조한다.

또 주목할 만한 해외 연구로는 Monzó-Nebot(2021)은 법률 번역가들의 아비투스를 순응적인(subservient) 아비투스와 전복적인(subversive) 아비투스로 구분하고, 이들이 각기 다른 사회화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제도적 규범(*doxa*)에 따르는 번역가들과 자신만의 번역 신념을 고수하며 제도와 갈등을 겪는 번역가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법률 경제 등 번역 분야 기반 전문성을 갖춘 번역가들이 기존 번역 규범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번역 프로세스 및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며 체제 전복적인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기존의 장 안에서 몰입하지 못하고 번역의 장을 이탈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번역가의 아비투스는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이질적인 구조로 설명되었다. 또한 왜 번역가로서 충분한 경력과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

는 번역가들이 궁극적으로 번역의 장에서 다른 장(관리 및 기술개발 등)로 이동하게 되는지, 그들의 관심이 왜 변하게 되는지 보여 주는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주요 이유에서 전문 번역 교육을 받은 번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 및 관례 등의 배경으로 직업 내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이들의 직업에서의 공정성 결여 및 가능성 결여 등이 다른 부서나 조직으로 이동을 부추기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은 Monzó-Nebot의 전복적 아비투스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혜담의 번역 실천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었다.

표 2

Monzó-Nebot(2021)의 전복적 아비투스과 유혜담의 번역 실천

구분요소	Monzó-Nebot(2021)	유혜담의 번역 실천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 의식	제도적 규범에 대한 비판과 저항	가부장적 언어/젠더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
비순응적 전략 실천	조직 내 규범에 도전하며 협상, 이탈 등 다양한 전략 수행	여성주의 번역전략(tagging, unpacking, mirroring 등)을 통한 의미 해체
사회적 실천으로서 번역	번역을 제도적 행위로 파악, 사회적 역할 강조	번역을 젠더 권력 해체와 여성 주체성 회복의 실천으로 이해

이와 더불어 여성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다룬 해외 연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Wolf(2008)은 독일어권 번역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 여성 번역가들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번역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가치와 권력 관계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부르디외의 상징형식 이론을 적용하여 번역장이 단순한 언어적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협상의 장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분석하는 동시에 그의 번역 실천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페미니즘 번역’의 개념과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유혜담 번역가가 번역서의 서문 및 다양한 파라텍스트에서 번역가로서의 정체성과 실천적 지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자는 2024년 4월 24일 유혜담 번역가에게 이메일로 연구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서신을 교환하며, 번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두 차례의 서신(2024년 4월 24일, 5월 13일)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번역가의 자전적 에세이와 번역서의 서문 및 파라텍스트를 함께 검토하였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번역가 유혜담이다. 그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번역가로 규정하였다는 점, 둘째, 그의 번역 작품이 모두 페미니즘 관련 번역서이다. 또한 그는 ‘별세계’라는 출판사를 만들어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 『탈혼기』를 출간하여 번역가로서 철학을 드러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연구자와의 서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전 에세이, 그가 번역한 책의 파라텍스트(서문 및 표지), 그리고 『코르셋』 원문과 번역서를 포함하였다.

3.2 아비투스 분석 적용

본 연구는 2장에서 검토한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연구 틀로 삼아, 번역가 유혜담의 성장 배경과 사회적 경험이 번역 실천 및 전략 선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확보한 두 차례의 서신과 번역가가 제공했던 강연 자료 그리고 번역가의 자전적 에세이를 주요 자료로 삼았다.

3.3 번역 분석 구간 및 선정 기준

번역의 분석 대상은 책의 파라텍스트뿐만 아니라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혐오』의 원문과 번역문(ST/TT)에서 발췌한 약 8개 구간이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혐오, 젠더 권력 담론이 뚜렷한 구간

2. 특정 전략 적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구간
3. 번역가 본인이 서문, 서신에서 문제의식으로 언급한 구간

3.4 번역 분석틀

본 연구는 한국어 번역 텍스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상빈(2023)이 제안한 일곱 가지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을 분석틀로 채택하였다. 각 전략의 정의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례 분석에 활용하였다.

3.5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역가 유혜담의 아비투스를 1차와 2차로 나눠서 페미니스트 번역가가 되기까지 그의 아비투스를 살펴보았다. 둘째, 원문 Jeffreys(2005)의 『Beauty and Misogyny』와 유혜담(2018)의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혐오』에서 표지 및 ST/TT 구간을 발췌하였다. 셋째, 이상빈(2023)의 7가지 전략을 코드북으로 삼아 분석하였으며 넷째, 번역가 서문, 파라텍스트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전략 선택의 맥락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4. 페미니스트 번역가 유혜담의 아비투스

4.1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1차 아비투스 : 유년기와 페미니즘 의식 형성

4.1.1 1990년대 한국 사회와 유혜담의 성장 환경

유혜담은 그의 저서 『탈혼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느꼈었던 여자로서의 생각과 커가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페미니스트로서 그가 직면하게 된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그가 언어에 관심을 갖을 수 있었던 계기를 언급하고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 성장하게 된 계기 및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다. 그는 1990년 백말띠 해에 태어났으며 그 해 태어난 여자아이는 ‘기가 세다’라는 통념이 있었다

고 회상한다. 남아를 바랬던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언급으로 그 시절 유혜담의 가정과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던 남아선호사상이 있던 시기를 말해주었다. 실제로 1990년대의 남아선호사상은 전체 인구의 성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삼식(2001)은 그의 연구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 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출생 성비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1990년에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출생성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홍보가 있었다고 연구는 말한다. 이러한 출생성비 불균형은 1차적으로 어머니인 여성의 남아선호의식에 기인하며 그를 둘러싼 주위 사람 및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남아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하거나 남아를 선호했던 것으로 연구는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여성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심리를 형성하였고, 딸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입버릇처럼 사회적 현실을 알게 모르게 주입하고 있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일상적 언어와 유머 코드 속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다. 유혜담은 이러한 유년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공주는 외로워>나 <세상의 모든 딸들>은 낯설지 모른다. 그래도 공주 병이라는 단어의 자기장에서 벗어나 살아온 여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첫 등교를 앞둔 나는 준비물을 사러 문방구에 간다. 고등학교 교복 차림에 양 갈래로 머리를 땀 김자옥이 책받침과 공책과 볼펜을 광고한다. 당시 김자옥은 40대다. 일곱 살 아이로선 까마득한 어른이 그러고 있는 것이 어색하다. 게다가 공주 이야기를 좋아했던 어린 취향에 찬물이 들이부어지는 기분이다. 희미하게 모욕적이다. 하지만 세상은 깔깔거리고 나는 따라 웃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유혜담, 2022, p. 23)

이러한 유년기의 기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남아선호 인식은 교육 기회나 가족 내 역할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실제로 강태중(2009)은 남아선호가 자녀 구성과 사교육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혜담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는 달리 주체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에세이에서

그의 가정환경에 대해 언급하며,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여자는 남자보다 두 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여자는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고 언급한다. 이는 단순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그 시대의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딸이 그 사회 안에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과 조언은 그가 어릴 적부터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으로서 삶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훗날 페미니스트로 성장하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구독하던 ‘시사영어 연구’ 잡지를 통해 국제 이슈에 꾸준히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화적 담론을 접할 수 있었다.

4.1.2 2000년대 한국 사회와 유혜담의 청소년기

2004년 사회적으로 유학에 대한 성공기가 많은 언론에 떠들썩하게 거론되었는데 ‘미국 명문대 합격’이라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떠오르던 때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로부터 ‘여자니까 전문직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회상한다. 이러한 환경을 토대로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는 미국에서 4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가 속했던 사회에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언급되었던 때와 그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사회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자라던 시대는 1990년대 ‘제3물결 페미니즘’의 등장이다. 1991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의 클라렌스 토마스의 성희롱 청문회가 TV로 방영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를 시청하던 많은 페미니스트의 분노를 일으키며, 페미니스트 저자이자 활동가인 앨리스 워커(Alice Walker)는 1992년 그의 에세이에서 “나는 포스트 페미니즘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나는 제3의 물결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시작되게 되었다(Bobel, 2010, p. 14). 유혜담은 그의 대학 시절 무렵을 설명하면서 1990년대 있었던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이 이미 대학가에 영향력을 미쳤던 시기였다고 회상한다. 또 그가 소속했던 ‘외대 문학회’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과 그의 필명에 사용했던 학교 선배의 영향력도 컸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의 페미니즘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대학생 때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비투스는 이러

한 주변환경과 사회 상황에서 영향을 받아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큰 사회적 자본 및 배경과 해당 장에 친밀함을 가지고 이와 연관된 재능이 그 사람의 기질(dispositions)에 반영된다(Bourdieu, 1983, p. 349). 본 연구자는 부르디외가 말했던 유혜담의 사회적 상황 및 배경이 그가 페미니즘에 더 친밀함을 가지고 사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4.1.3 2010년대와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 확립

유혜담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인정하는 시기를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메갈리아 미러링’ 관련 이슈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혜진(2022)은 2015년 이후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이를 주도했던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였다고 하며 이들 세대를 ‘메갈 세대’, ‘강남역 세대’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이 크게 확산되고, 메갈리아의 미러링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 시위에 대한 분석으로 ‘새로운 페미니스트’들이 늘어나고 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번역가도 이 세대의 영향을 받은 일원으로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당시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에 있었고,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메갈리아’의 온라인 사이트에도 함께 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다음은 그가 페미니스트로서 인지했던 때의 설명이다.

나는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다. 그냥 어디서 들어 본 것이 아니라, 나와는 관련 없는 먼 단어가 아니라, 부정해야 하는 딱지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가까운 나의 이야기로서, 나도 여자가 너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씹는 벽찬 동질감으로서, 내가 아는 세상을 하얗게 불태운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세계로서, 나는 이제 진정으로 안다. 나는 모든 여

1) 메갈리아란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여초 커뮤니티이다. 메갈리아는 여성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베저장소(일베)’와는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48>

자를 우리라는 주어로 말하며, 여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일처럼 느끼게 되었다(유혜담, 2022, p. 215)

이처럼 유혜담 번역가는 그가 살던 시대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가 선택했던 페미니스트 번역에도 반영되었다.

4.2 번역가의 2차 아비투스 -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구축

4.2.1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의 전환점

번역가가 영어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계기는 미국 유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번역가의 중학생 시절 하버드대학교 아동심리학 교수 덴킨들런(Dan Kindlon)의 ‘알파걸’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무렵, 어린 번역가도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면서 스스로를 알파걸 세대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유혜담, 2022, p. 72). 그는 2022년 3월에 있었던 숙명여대 온라인강연에서 사용한 대본을 본 연구자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번역가 자신에 대한 설명에서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고 책을 너무 좋아했으며, 언어의 자신감이 컸다”고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홀로 유학길에 올라 4년 동안 고등학교에 다니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4년 동안 현지 인들과 부딪히고 영어를 배우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한국외대 영어 통번역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다. 이후 영어와 한국어의 탁월한 능력으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는 본 연구자와의 서신(유혜담 2024b)에서 “첫 사회생활은 정부 기관에서 시작하였으며 페미니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업무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디터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출판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서신(유혜담 2024a)의 첨부파일로 보내준 숙명여대 강연 대본에 따르면, “번역하면 할수록, 여성 혐오적인 언어가 제 생각을 제약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한국어, 영어를 잘해도 나의 언어 같지 않고, 남의 언어를 잘하는 것이고 빌린 도구를 아무리 능숙하게 잘 써도 그게 번역가의 도구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그가 느꼈던 업무 번역에서 느꼈던 갈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혜담 번역가의 본명은 ‘진인휘’로 ‘유혜담’이라는 이름은 그의 필명이다. 본인의 이름을 두고 필명을 대체하는 번역가들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번역가에 대한 필명을 연구한 것은 보기가 드물지만, 일반적으로 작가 및 번역가가 필명을 사용하는 데는 개인마다 이유가 존재한다. 김은규(2019)에 따르면 필명은 행동이나 외모에 대한 별명형, 자신이 살아 온 과거나 현재의 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유형, 당사자가 가진 포부나 신념을 담아내는 유형, 자연 풍광 및 좋아하는 사물, 사상적 의미를 내포하는 정서적 유형 등, 필명의 사용 요인은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결과를 언급한 바 있다. 유혜담 역시 그의 정서 및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그는 페미니즘 관련 작업에서만 유혜담이라는 필명만을 사용했다고 밝힌다. 그의 저서에서 필명이 탄생하게 된 계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음은 그의 설명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처럼 다른 이름을 쓴다. 그래서 진인휘가 아니라 유혜담이라고 사인한다. 할머니 유옥상에게서 성을 받고, 엄마 박혜서에게서 가운데 글자를 따오고, 대학 시절 동아리를 같이 한 소담 언니에게서 끝 글자를 빌려와서 만든 새로운 이름, 내가 아는 가장 대단한 여자들의 가장 대단한 부분을 조합해서 가장 대단해 보이는 이름, 내가 번역한 책은 전부 유혜담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유혜담, 2022, p. 217-218)

그가 페미니스트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과 정신적 지주로 삼은 인물들의 이름을 필명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의 사상이 필명에 투영되며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실천: 전략 분석과 번역 철학

4.3.1 서문에서 드러난 번역 철학

유혜담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번역서 다섯 권과 그의 자전 에세이 한 권을 내놓았는데, 2018년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혐오』, 2019년 3월 『여자

는 인질이다 - 왜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가』, 2019년 9월 『젠더는 해롭다 - 페미니즘의 눈으로 본 트랜스젠더 정치학』, 2020년 『위안부는 여자다 -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이 번역서 네 권은 열다북스²⁾출판사에서 출판하였고, 2023년 『발푸르기스의 밤: 한국의 마녀들 - 사일런트메가폰 기획전 도록』은 그가 만든 페미니스트 출판사인 '별세계'에서 출판하였으며, 그의 자전 에세이 또한 그의 출판사에서 제작하였다.

그의 페미니스트 번역에 대한 고민은 그의 번역서 서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의 첫 번째 번역서였던 『코르셋』의 서문에서 번역가는 '자연스러운' 번역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번역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여성혐오가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은 '자연스러움'을 의심하는 과정이었다...(중략)...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은 한국에서 자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저자가 직접 쓴 글처럼 보여야 한다고 믿었다. 번역에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그런 기준이 산산조각 났다.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모습"이라는 뜻으로 '민낯'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였다...(중략)... '자연스러움'이라는 기준 자체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유혜담, 2018, p. 25)

번역가는 『여자는 인질이다』의 서문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책을 읽는 것은 좋았지만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 번역이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모든 언어는 가해자의 언어이고 그 언어로 싸우고 어떻게 피해를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는 번역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 원칙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단어의 어원에 대한 고려이다. 여성 혐오적 어원의 단어일 경우, 좀 더 고심하고 되짚어보며 사용했다고 말했다. 페미니스트로서 번역가의 새로운 시도는 이상빈(202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빈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에 맞추어 7가지로 분류 및 체계화하였다. 실제로 von Flotow(1991)가 제시했던 이전의 번역전략 (supplementation, prefacing, footnoting, hijacking)을 제시한 바있다. 이 분류는 초기 페미니즘

2) 열다북스는 해외 래디컬 페미니즘 학자들의 책을 번역출판하는 출판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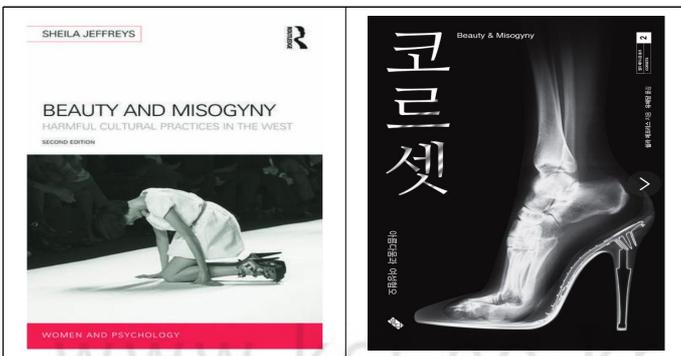
번역의 전복적 성격을 잘 설명해주지만, 실제 번역 텍스트 내 세부 조작 수준에서 구체적인 분류와는 거리가 있다. 예컨대,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어 구조 조정이나 젠더 역할 명시와 같은 다양한 조작 방식은 von Flotow의 틀 속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이상빈의 분류는 fanning, mirroring, tagging, unpacking 등 보다 세분화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번역 텍스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변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연구자는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혜담 번역가의 번역 실천을 분석함에 있어, 초기 서구 이론의 전복적 성격을 참고하되, 실제 한국어 번역 텍스트의 다층적 조작 양상을 세분화한 이상빈의 전략분류를 중심으로 분석을 구성하였다.

4.3.2 시각적 과라텍스트 분석: 원서와 번역서의 표지 비교

이상빈은 기존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어 번역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아래의 7가지 번역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서 페미니스트 번역의 다양한 수행 방식들을 실증적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원서와 번역서의 겉표지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번역전략에 따른 번역가의 예시를 이상빈의 7가지 번역전략을 바탕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다음의 그림과 표는 원서인 Jeffreys(2005)의 『Beauty and Misogyny』와 유혜담의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혐오』이다.

그림1

원문 『Beauty and Misogyny』와 번역서 『코르셋:아름다움과 여성혐오』의 표지



위의 그림은 원문과 번역서의 표지이다. 두 서적의 그림이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왼쪽 원문의 경우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무릎을 꿇고 있다. 이 모습은 수동적이면서 순응적인 태도가 눈에 띈다. 번역서는 하이힐 속 발의 엑스레이 사진으로 변형된 뼈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굽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색상의 경우 원문은 학술 시리즈이기 때문에 흑백과 하단에 붉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한 반면 번역서는 흑백 엑스레이 기반의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원서 표지는 문화비판적 시선을 지닌 페미니즘 이론서로 보이지만, 이미지 자체는 다소 모호하고 상징적이다. 하지만 번역서의 경우 엑스레이라는 해부학적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억압과 고통을 내면화시킨 몸의 변형으로 시각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표지의 변형은 단순한 시각적 변화라기보다는 번역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시각적 전략화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후 본문 번역에서 적용된 다양한 텍스트 번역전략과 병렬적으로 작동하며, 번역가의 번역 철학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투영되고 있다.

4.3.3 번역전략 적용 사례 분석

아래 표는 유혜담 번역가의 번역 사례를 7가지 페미니스트 번역전략 분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전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원문(ST)와 번역문(TT)을 제시하고, 전략의 실제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유혜담의 번역과 이상빈(2023)의 번역전략을 기반으로 분류

번역전략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Fanning</p> <p>(남성 중심 언어의 기본값을 전복하는 전략, 여성 중심으로 재설정하는 실천)</p>	<p>ST: <u>She</u> created the Sex book, which is full of pornographic and prostitution imagery and has made videos which are directly about prostitution. (p. 75)</p> <p>해석: 그녀는 ‘섹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은 포르노 및 성매매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으며,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상들도 제작해 왔다.</p>

	<p>TT: 마돈나가 낸 『섹스』 라는 제목의 사진집에는 포르노 및 성매매적 이미지가 가득했고, 그는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다루는 여러 영상을 찍기도 했다. (p. 196)</p>
<p style="text-align: center;">Mirroring</p> <p>(기존의 성별 명칭 구조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재현하거나 전복하는 방식’)</p>	<p>ST: Gerda Lerner explains in the Creation of Patriarchy, that the code, which predated the three religions, <u>required women who were not prostitutes</u> to cover themselves so that they could indicate that they were the property of individual men. <u>The prostituted women</u>, usually slaves, were uncovered to indicate that they were the property of men in general. (p. 43)</p> <p>해석: 거다 러너는 ‘가부장제의 창조’에서 특정 남성들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 종교보다 앞선 시기의 법전이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여성들에게 자신을 가리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한다. 보통 노예였던 성매매 여성들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남성의 소유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을 노출했다.</p> <p>TT: 거다 러너는 『가부장제의 창조』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u>여창이 아닌 여자에게 머리를 가릴 것을 명한 건 남자의 개인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u> 반면 보통 노예 신분으로 <u>성매매 되었던 여창은 남성 전반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u> 라고도 되어 있다. (p. 132)</p>
<p style="text-align: center;">Tagging</p> <p>(성차별적 함의를 가진 단어에 부가적 표식을 붙여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전략)</p>	<p>ST: Binding was initiated at 6 or 7 years old and carried out by <u>the girls’ mothers</u>. (p. 130)</p> <p>해석: 전족은 6~7세부터 시작했으며 소녀들의 어머니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p> <p>TT: 전족은 6~7세부터 시작했으며 <u>어린이의 어머니가 직접</u> 시행했다. (p. 297)</p>
<p style="text-align: center;">Reversing</p> <p>남성 우선 순서를 고정화한 어휘의 어순을 뒤바꿈으로써 젠더 위치의 문제를 제기하는 전</p>	<p>ST: But most importantly <u>women are understood to be different from men</u> in being both potentially “beautiful” and in being interested in beauty and enthusiastic to put in huge amounts of time,</p>

<p>략</p>	<p>money, pain and emotional distress to be “beautiful”. (p. 21) 해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아름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다는 점 그리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 돈, 고통, 정서적 스트레스를 기꺼이 감수하려한다는 점에서 남성과는 다르다고 여겨진다.</p> <p>TT: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u>여남</u> 간 차이는 ‘아름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름답기’ 위해 엄청난 시간, 돈, 육체적 감정적 고통을 들일 흥미와 열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p. 94)</p>
<p>Unpacking 짧은 단어 속에 압축된 사회적 의미나 젠더 권력 관계를 자세히 풀어쓰는 전략</p>	<p>ST: Feminist social constructionists <u>have not accepted this biological explanation.</u> (p. 47) 해석: 페미니스트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이 생물학적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TT: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트랜스섹슈얼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p. 141)</p>
<p>Normalizing 여성 비하적 표현을 중립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언어로 대체하는 전략</p>	<p>ST: <u>Peggy uses her Christian faith to enable her to sacrifice her interests to the service of her husband’s sexual excitement.</u> In self-abnegation she says “<u>I knew it was wrong to judge my husband</u>”. (p. 63) 해석: 페기는 남편의 성적 흥분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게 그녀의 기독교 신앙을 이용한다. 자기 부정의 자세로 그녀는 “저는 남편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말한다.</p> <p>TT: 남편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u>전통적인 가정주부들은 최대한 상황에 적응하려 노력한다.</u> 본인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내 버리고 남편의 성적 흥분에 봉사하기로 한다. “남편을 이런저런 잣대로 평가하는 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u>희생정신</u>으로 가득 찬 말을 한다. (p. 171)</p>

<p style="text-align: center;">Footnoting</p> <p>번역 텍스트에 주석을 활용하여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설명하거나 번역 선택의 이유를 밝히는 전략</p>	<p>ST: This kind of porn, which has progressively increased in popularity, is, according to AVN, directed at young men who like <u>locker room humour</u>. (p. 69)</p> <p>해석: AVN에 따르면, 점차적으로 인기가 높아졌던 이런 종류의 포르노는 라커룸 유머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을 겨냥하고 있다.</p> <p>TT: 라커룸 농담: 남자들만 있는 라커룸에서 오가는 대화라는 뜻으로 여성 비하적 '음담패설'을 뜻할 때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지를 잡으면 된다 grab the pussy' 발언의 녹음 파일이 유출돼 비난받자 '라커룸 대화' 일뿐이었다고 변명한 바 있다. (p. 185)</p>
--	---

위의 첫 번째 Fanning 번역전략의 예시는 Tagging과 Fanning 모두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문에서 언급한 'She'를 번역가는 보편적 주체화의 의도로 '그'라고 표현하였다. Mirroring 번역전략에서는 '여창'이라는 번역어는 낯설 수는 있지만, 작가는 서문에서 의도적으로 여성 혐오적 함의의 낯선 표현을 지양하려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 번째 Tagging 번역전략의 예시는 원문에서 'girls'라는 단어로 여성 아동이라는 성별 정체성을 강조하며, 전족이라는 행위가 여성에게만 가해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번역문은 이를 '어린이'로 번역하여 젠더 특이성을 제거하였다. Tagging 전략은 이처럼 성별 고정 관념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Reversing은 언어 질서의 위계 전복이라는 점에서 '남녀'를 '여남'으로 순서를 바꿈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다섯 번째 Unpacking은 원문에서 단순히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한 트랜스를 말하는 'this biological explanation'을 번역가는 생물학적 트랜스 섹슈얼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 '설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젠더 권력 구조의 논점을 드러내면서 언어 속의 이데올로기를 자세히 풀어썼다. 다음으로 Normalizing 전략의 예시는 노골적인 성적 지배 구조의 표현을 완화하고, '전통적인 가정주부'라는 일반화된 서사로 재구성하였으며, '적응하려 노력한다', '희생정신'이라는 표현으로 중립적이면서 동정적인 서술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ootnoting의 예

시를 보면, 원문에서 “locker room humour”를 번역가는 각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라커룸 유머는 남성 중심적, 성적 농담 문화를 뜻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비교적 중립적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번역가는 정의적 설명을 제공하면서, 비판적 해석 ‘여성 비하적 음담패설’이라고 말하고 ‘트럼프 발언 사례’를 제시하면서 문화적 예시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어 Footnoting의 번역전략을 성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각 전략들은 여성 중심의 언어 질서를 변경하거나 성차별적 표현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전략들은 특히 래디컬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언어 자체에 내재된 젠더 권력을 문제 삼고 이를 번역 과정에서 드러내거나 재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이상빈(2025)의 급진적 및 비급진적 번역 비교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나아가 번역가의 전략은 단일 전략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전략 구사를 통해 더욱 유기적으로 실현된다. 예컨대 번역가는 특정 표현 ‘Dior’광고의 특정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Mirroring 전략과 Normalizing 전략, 그리고 Fanning 전략을 동시에 활용하여 다층적인 번역 효과를 창출하였다.

ST: First is a Dior advertisement in which a young model, slathered in oil and ostensibly playing air guitar, strums her crotch with her legs splayed wide.(p. 70)

(첫 번째 디오르 광고에서 젊은 모델이 오일을 듬뿍 바르고 걸보기에 에어 기타를 치면서 그녀의 다리를 벌린 채로 그녀의 가랑이를 튕긴다.)

TT: 첫 번째는 「디오르」 광고다. 오일을 잔뜩 바른 채 기타 치는 동작을 취하는 젊은 모델이 다리를 활짝 벌리고 가랑이 쪽을 튕기고 있다.(p. 190)

이 번역에서 번역가는 ‘young model’의 표현에서 성별을 생략하고 ‘젊은 모델’로 표기함으로써 Mirroring 전략을 적용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원문에

서 성별 지시어 ‘her’의 사용이 반복되었지만 이를 제거하고 젠더를 비지시화하였다. 이것은 단순 생각이 아니라 광고의 성적 대상화 구조를 감추거나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Mirroring의 전복적 특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원문의 ‘strums her crotch’는 매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인데, 번역문에서는 이를 ‘가랑이 쪽을 뿜기다’로 옮기면서 직설적 표현을 완화하였다. 또 원문에는 없는 부사 ‘활짝’을 추가하여 시각적 연출의 강도를 강조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번역가가 성적 대상화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대신, 일부 표현을 더 노골화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 감정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적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Fanning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성차별적 시선의 ‘자연스러움’을 역으로 드러내었다. 따라서 위 예시는 단일 전략이 아닌 여성의 신체가 소비되는 언어 구조에 대한 복합적 대응으로 3가지 전략을 동시에 적용한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유혜담 번역가의 실천은 단지 문장 단위의 전략 구사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맥락과 번역 대상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바탕으로 보다 거시적인 번역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윤리와 여성 주체성 재구성을 중심으로 그녀의 번역 실천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4.3.4 번역가의 언어적 윤리와 여성 주체성의 재구성

위의 예시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다양한 전략이 중첩되어 사용되는 복합적 사례를 보여 주는 반면, 다음은 번역가가 번역 대상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페미니스트 번역을 실천한 사례를 보여 준다. 일례로 번역가는 본 연구자에게 『위안부는 여자다』의 역자 서문 『우리의 국적은 여자다』라는 제목의 2차 수정본을 전달해 주었다. 그는 위안부를 국적에 상관없이 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여자의 고통을 보았다. 또한 번역가는 가독성보다 피해자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언어를 쓰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현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치 상황과 뉴스를 읽으면서 이를 토대로 번역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은 그의 설명이다.

피해를 겪은 여자를 단순하게 ‘위안부’나 ‘성노예’로 부르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더라도 억류된 여자, 인신매매된 여자, 성착취 제도에 묶인 여자, 성 착취당했던 여자, 잡혀 온 여자처럼 써서, 피해가 이들을 수식할지라도 정의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여자라는 사실 하나로 피해를 겪었으니 이를 중심으로 문장을 꾸리는게 옳았다. 간결함이 필요해서 ‘위안부’ 피해자/생존자 혹은 성노예제 피해자/생존자라고 쓸 때는 ‘위안부’라고 불리고 ‘성노예’ 취급을 받는 자체가 피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했다.(2020년 6월 29일 위안부는 여자다 역사 서문 2차 수정)

유혜담은 페미니스트 번역가로서 아직 가부장제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또 다른 분야의 전문 번역가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홍승연(2019, p. 261)은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행동가적 실천에 대한 설명에서 페미니스트 번역가들은 텍스트의 선정 단계부터 행동가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내 독자들에게 외국의 학자 및 작가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유혜담 역시 역사 서문 및 강연, 저서 등을 통해서 페미니스트 번역을 알리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번역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한 설명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로서의 번역 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번역에서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5. 한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통한 번역 실천의 의미

본 연구자는 한 페미니스트 번역가가 형성해온 아비투스, 그리고 그 아비투스가 어떻게 번역 실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유혜담 번역가는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 경험한 성차별적 구조와 사회적 제약 안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자기 인식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페미니즘 번역이라는 실천의 장에 들어서게 되었다. 통번역학 교육을 받은 것과 유학 경험, 그리고 영어 번역가로서 전문성은 그의 번역 실천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교육적 자산이었다. 특히 그의 번역서는 단순한 언어 전달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찰과 실천을 투영한 번역가의 노력의 결과이며, 이를 통하여 여성 주체성의 재구성과 언어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번역 윤리

가 실현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진 바 없는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아비투스’를 중심으로 번역 실천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번역학 연구의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둘째, 유혜담 번역가의 동의를 얻어 자전적 에세이, 강연 원고, 역자 서문 등 미공개에 가까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단순한 사례 기술을 넘어선 의의가 있다. 또한 이상빈(2023)이 제시한 페미니스트 번역 전략 분류 체계를 통해 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페미니스트 번역전략의 실제 적용 사례를 입증하고자 한 것도 이 연구의 큰 의의 중 하나이다.

물론 본 연구는 연구자의 해석이 상당 부분 개입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며, 페미니스트 번역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현실점에서 독자의 공감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국내 페미니스트 번역 실천과 번역가 연구의 출발점이자 초석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연구자는 기대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번역가, 장르, 문화적 맥락을 포괄하는 후속 연구로의 확장을 통해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유혜담 (역). (2018). 코르셋: 아름다움과 여성혐오. 열다북스.
 유혜담 (역). (2019). 여자는 인질이다. 열다북스.
 유혜담 (역). (2019). 젠더는 해롭다: 페미니즘의 눈으로 본 트랜스젠더 정치학. 열다북스.
 유혜담 (역). (2020). ‘위안부’는 여자다 -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북스.
 유혜담. (2022). 탈혼기. 별세계.
 유혜담. (역). (2023). 발푸르기스의 밤: 한국의 마녀들. 별세계.
 Jeffreys, S. (2005). Beauty and misogyny: Harmful cultural practices in the

West. Routledge.

<2차 자료>

- 강태중. (2009). 사교육비 지출의 성별 차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2), 359-378.
- 김은규. (2019). 일제강점기 근대 언론인들의 필명 유형과 필명 사용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19(4), 61-90.
- 명선혜. (2020). 전문 번역사의 MTPE 인식 전환 가능성 모색-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3), 37-62.
- 이경탁. (2016. 7. 29.). 미디어□인터넷 뒤집어 놓은 ‘메갈리아’..제2의 일베? 디지털투데이.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48>
- 이삼식. (2001).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 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2), 35-36.
- 이상빈. (2023). Radical feminist translations and strategies: A South Korean case. *Translation Studies*, 16(1), 101-117.
- 이상빈. (2025). A tale of two feminism: radical vs non-radical translation. *The Translator*, 31(3), 270-289.
- 임진. (2020).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바깥텍스트와 번역결과물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1), 167-199.
- 오혜진. (2022).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스트-되기의 해방과 곤경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5(1), 39-79.
- 유혜담. (2024a, 4월 24일). 연구자와의 개인 서신 [미간행 원고].
- 유혜담. (2024b, 5월 13일). 연구자와의 개인 서신 [미간행 원고].
- 홍승연. (2019). 래디컬 페미니즘 번역과 출판과정을 통해 살펴본 페미니스트 번역가의 행동가적 실천. *통역과 번역*, 21(3), 239-268.
- Bobel, C. (2010). *New Blood: Third-wave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menstruation*. Rutgers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83). The field of cultural production, or: the economic world reversed. *Poetics*, 12, 311-356.

- Gouanvic, J. (2005). A Bourdieusian Theory of Translation, or the Coincidence of practical instances: Field, 'habitus', capital and 'illuio'. *The Translator*, 11(2), 147-166.
- Inghilleri, M. (2005). The Sociology of Bourdieu and the construction of the 'objec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The Translator*, 11(2), 125-145.
- Kindlon, D. (2006). *Alpha girls: Understanding the new American girl and how she is changing the world*. Rodale Books.
- Monzó-Nebot, E. (2021). A case study of unquiet translators: Relating legal translators' subservient and subversive habitus to socialization. *Target*, 33(2), 282-307.
- von Flotow, L. (1991). Feminist translation: Contexts, Practices and Theories. *TTR*, 4(2), 69-84.
- Walker, A. (1992). *Possessing the secret of joy*. Harcourt Brace.
- Wolf, M. (2008). The female state of the art: Women in the "translation field". *In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pp. 129-14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Exploring the habitus and translation strategies of feminist translator Hye-dam Yu: Paratextual and textual analyses of *Corset*

Hwa-yeon Lee (202131014@hufs.ac.kr)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practice of the feminist translation through the case of Korean translator Hye-dam Yu. Drawing on Pierre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it explores how the translator's social trajectory and internalized values have shaped her identity and orientation as a feminist translator. Focusing on her Korean translation of Sheila Jeffreys's *Beauty and Misogyny*, the study analyzes the application of seven feminist translation strategies proposed by Lee Sang-bin (2023), including mirroring, tagging, unpacking, and footnoting. The analysis focuses on selected passages where discourses of femininity and misogyny are most salient, thereby illustrating how Yu's feminist translation strategies are concretely enacted. By examining eight specific source and target text segments, this paper reveals how Yu's translation choices embody a translator's habitus that resists patriarchal doxa and engages in socially conscious rewriting. The finding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agency in feminist translation practices an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sociological framework in translation studies.

Keywords: Feminist translation; translator's habitus; Korean feminist strategies; sociological translation studies; Bourdieu theory

키워드: 페미니스트번역, 번역가아비투스, 한국적페미니스트번역전략, 사회학적관점번역, 부르디외이론

이화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202131014@hufs.ac.kr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9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